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4월 21일(금)
(윤력 3월 2일)
Пятница
21 апреля 2023г.
№ 15 (1203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청결의 달이 시작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대청소에 나섰다.

(이예식 기자 촬영)

주지사, 2년 내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모든 현관 수리할 계획 세워

향후 작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사할린주주택공공관리부가 주정부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올해 최소 4,000개의 현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수리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섬 지역에 중점을 두고 공공장소 보수 및 개선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리가 필요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모든 현관을 2년 안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가 이 계획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속도를 내고 작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주택 및 공동 서비스부와 '통합 러시아당'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가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 회사에 도움을 제공하는 주민들 스스로의 열망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올해는 대부분의 작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2,000개의 공공장소를 개조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반대로 사할린주내 지방들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사할린주 주택공공관리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가 덧붙였다.

이 회의에서 사할린의 모든 도시 지역에서 최고의 현관을 선발하는 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도 알렸다.

현재 현관 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벽면과 현관 문을 칠하고, 난간을 교체하거나 복원하고, 우편함을 설치하고, 전선용 케이블 덕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늑한 현관을 만들고 싶어하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사할린의 랜드마크나 만화 캐릭터 사진, 그림과 화분을 계단에 걸기도 한다. 보수 공사의 품질은 전문가, 일반인, 건물 관리자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서 평가할 것이다. 이 작업은 '통합 러시아당' 프로젝트 "우리 마당, 우리 현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관리 회사는 공공시설 수리 비용의 50%를 상환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관에 어떤 종류의 보수를 할지는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공간이 더 빨리 변화하고 아늑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거주자는 주택 관리 회사에 연락하여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유자 총회 또는 건물 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할린테크"단지, 2025년에 완공 예정

"사할린테크" 첨단 과학 및 교육 단지 프로젝트가 시설 건설에 대해 글라브고스엑스페르티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학술 건물, 기술 공원이 있는 과학 및 실험실 구역, 도서관, 700석 규모의 강당, 공공 및 비즈니스 공간, 온실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 과학 교육 단지는 러시아 교육 과학부가 지방 정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다. "사할린테크 캠퍼스 프로젝트의 두 건설 현장에 대해 러시아 글라브고스엑스페르티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현대식 대학 캠퍼스 조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좋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앞으로 많은 공동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부국장인 아이랏 가티야토프가 말했다.

이 교육 단지에는 약 1,5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250명의 교사가 근무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학생과 과학자들은 최첨단 과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건설은 지역의 과학적 잠재력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것이다.

사할린은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프로젝트 수상 지역이다. 러시아에는 총 17개의 대학 캠퍼스가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편안한 생활, 학습 및 여가 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하여 러시아 교육과학부가 지역 및 기업과 함께 '과학 및 대학'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신

연말까지 극동 지역에서 200척 이상의 난파선 인양 예정

2024년 말까지 극동 지역에서 200척 이상의 난파선이 인양되는데 이에 약 10억 루블리가 할당될 예정이다. 주정부 지원으로 지역에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사할린과 마가단 지역, 캄차카, 추코트카, 야쿠티아, 하바롭스크 및 연해주 등 극동 연방 지구의 7개 지역이 연방 일반 청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 쿠릴열도 훈련에 항의

일본측이 쿠릴열도 훈련에 항의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4월 18일부터 이투루프 섬 인근에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웃 국가에 통보했다.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사무차장은 말했다.

훈련 구역에는 일본이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이 포함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태평양 함대의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해 예정에 없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무료 검진에 초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에 대해 시 정부에서 밝혔다.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3년에 한 번, 4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예방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시장실에서 상기시켰다.

사할린 주민은 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검사, 심장 및 기타 장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방문하기만 하면 된다.

조직에서는 적절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자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평일에는 사회정책부(312-710)로 문의하면 된다.

러시아, 5월에 11일의 휴일 있어

2023년 봄과 노동절 전날인 4월 29일, 30일, 5월 1일(토~월) 3일간 러시아 국민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두 번째 연휴 기간은 승리의 날 연휴이다. 5월 6일부터 9일까지(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휴일이 있다. 러시아 정부 결의안 1505호 "2023년 공휴일 이전"에 따라 1월 8일 일요일이 연기되어 5월 8일이 휴무일이 되었다.

따라서 5월에는 1, 6-9일과 13, 14, 20, 21, 27, 28일 등 총 11일을 쉬게 된다. 이 중 8일은 일반 주말(토요일, 일요일), 3일은 명절 날이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물놀이에 애정이 넘치는 청년, 민 왜채슬라브를 만나다

필자가 처음 민 왜채슬라브(애칭 슬라와)군을 만난 것은 그가 16세일 때였다. 당시 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견한 목진호 선생한테서 사물놀이를 배웠다.

2007년도였는데, 그는 한민문화센터 한민족문화예술교실 제1회 졸업생이 되었고, 그해 7-8월에 한민문화센터에서 한달간 진행된 <사물놀이> 하기민속문화학교에서 처음 사물놀이 강사를 맡았다.

현재 31세의 민 왜채슬라브는 <미니말>사물놀이팀(코르사코브)의 선생이자 지도자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인 그는 제9동양어문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당시 목진호 파견강사가 사물놀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사물놀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때 그의 동창인 송 알리크(현 <하늘>사물놀이 지도자)와 신 인가와 함께 사물놀이를 배웠고, 이들과 함께 사할린한민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의 한 일원으로 2008년 부여에서 개최된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 처음 참가도 해보았다. 슬라와에게는 사물놀이 자체가 흥미로웠고 목진호 선생이 만든 기회(대회 참가)로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대회에 9개 국가들이 참가했는데 우리는 러시아를 대표했었어요. 사물놀이를 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초보라 상을 받지 못했는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곳에 머무는 7-1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연습했고 새로운 것도 익혔습니다"라고 슬라와가 회상했다.

그는 공부하랴 일하랴 한때 사물놀이를 그만 둔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물놀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알리크, 인가 친구들과 뭉쳐 다시 사물놀이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한민문화센터에서 2007년부터 4-5년을 가르쳤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강사 지원이 끊어지자 젊은이들이 스스로 '하늘'사물놀이 팀을 유지하려고 했다.

2013년에 슬라와를 포함한 친구 4명이 뜻을 모아 자부담으로 한국을 찾아갔다. 이름난 사물놀이 소경진장인(한울림예술단)에게 간절히 부탁해 열흘간 교육을 받았었다.

슬라와는 중학교 9학년을 마치고 비즈니스정보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사할린국립대에서 관광을 전공하고 2016년에 졸업했다. 작년에 또다시 공부를 시작해, 지금은 상담교사(교사-심리학자) 석사 과정 중에 있다.

"이 전공을 택한 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심리학 자체가 재미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에게 계속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요"라고 슬라와가 말했다.

한때 그는 한국 대학에서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한국에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풀려서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러시아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때 (10살쯤) 재정형편으로 한국에서 돈벌이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국에 머물고 계신다. 슬라와는 외할머니와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가 많이 좋아하고 놀고 마

워하는 할머니는 얼마전에 돌아가셨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부모를 못 본지도 오래 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신 인가와 송 알리크와 함께 '하늘'사물놀이팀에서 활동하면서 한민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는 코르사코브지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 부탁으로 코르사코브 학생들에게 한민족타악기를 가르치고 있다. 당시 <하늘>팀 지도를 맡은 신 인가에게 강사를 보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인가가 왜채슬라브에게 이 일을 제안했다. 고심 끝에 승락을 한 그는 거의 9년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코르사코브 시를 찾아 장구, 북 등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처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랬어요. 차차 익숙해졌고 지금은 코르사코브시가 아주 가까운 곳으로 느껴집니다"라고 슬라와는 말한다.

수업시간은 주로 3시간 이상이다. 1주일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그는 초등그룹과 상급그룹을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8-9세이고 상급 아이들은 2015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아이들이다. 현재 상급그룹은 3명인데 이미 학교를 졸업해 18세의 대학생들이 되었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토요일 연습은 빠짐 없이 다닌다. 필요하다면 왜채슬라브는 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한다.

상급그룹은 도시 공연, 다른 행사때도 초대되어 공연하기도 해 코르사코브에서는 꽤 인기있는 그룹이



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한인협회 주관한 발표공연에서 새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초등그룹은 데뷔무대라 많이 떨었는데 발표는 괜찮았다고 왜채슬라브 강사가 말했다.

그는 제자들이 공연을 잘 하면 뿌듯하다고 한다. 칭찬도 해주고, 틀린 부분은 '이런이런 부분을 더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해주기도 한다.

그는 한국과 문화교류가 다시 활발해졌으면 한다. 제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연수를 제대로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진지한 면이 많은 그는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다. 필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간단하게, 내용만 잘 전달되도록 말을 해서 추가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아직 미혼인 그가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고, 쉴 때는 새로운 취미-드럼 키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비프투르여행사를 비롯 여러 회사 업무 경험이 많은 그는 항상 성실한 근로로 인정받고 있다. 2018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이테

크>회사(디지털 기계 매점)의 지점이 열렸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점이, 극동지역에는 여러 지점이 있다.

슬라와는 이 지점에 일반 판매원으로 1년간 일한 후 사할린 지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전에 하던 지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되어 본점으로 돌아가면서 왜채슬라브를 이직위에 추천했다. 그 이유는 민 왜채슬라브가 시간을 잘 지키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나 이도, 업무에 대한 지식과 열정도 지점장을 맡기에 적합했다. 이렇게 5년째 사할린 지점을 이끌고 있는 그는, 지점장으로서 계약, 임대, 감사, 홍보 등을 비롯해 여러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7-8명 두고 일하고 있다.

작년부터 새로운 취미가 생겨 드럼 키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시험단이 있어 한 행사장에서 발표공연도 했었다. 본인 파트 솔로를 외었는데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발표하던 중에 기타리스트가 맞지 않은 솔로를 해, 그가 외운 솔로를 할 수 없었고 순간적으로 한민족 타악기에서 배운 리듬을 치게 되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했다는 점에서 심사단의 칭찬을 받았다.

타악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눈에는 빛이 난다. 그는 타악기 중 장구와 북을 가장 좋아하는데, 익히기 어려운 썩과리의 리더역할도 마음에 든다고 한다.

선하고 진정성 있는 민 왜채슬라브가 좋아하는 말은 <앞으로 나가자>라는 표현이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음악가, 자신의 생일에 990만 루블리 당첨

사할린 출신 음악가 안드레이가 자신의 생일에 복권"트리 쥐디 트리"에서 990만 루블리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국가 복권" 보도부에서 이에 대해 전했다.

사할린 출신 남성은 오랫동안 사고 싶었으나 비싸서 엄두를 못 냈던 콘서트 아코디언을 구입하는 데 상금의 5분의 1 정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는 약 3개월 동안 복권에 참여했고 꾸준히 50루블씩 당첨되어 복권 구매 비용 본전만 찾았었다. 생일날에 그는 복권을 확인하고 거의 천만 루블리에 달하는 금액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170만 루블리를 지불하고 아코디언을 주문했으나 악기를 만드는 데 약 2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는 상금의 일부를 자택에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어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사할린 출신 남성은 남은 자금은 은행 계좌에 저금하였다고 한다. 안드레이는 교사로 계속 일하면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계획은 없다고 한다.

Музыкант с Сахалина выиграл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9,9 млн рублей

Музыкант с Сахалина Андрей выиграл в лотерею «Трижды три» в день своего рождения 9,9 млн рубл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Национальной Лотереи».

Сахалинец рассказал, что примерно пятую часть выигрыша планирует потратить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нцертного аккордеона, который давно хотел купить, но не мог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из-за его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Андрей играл в лотерею около трех месяцев и стабильно выигрывал по 50 рублей, компенсируя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а.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он проверил свой билет и обнаружил, что выиграл почти 10 млн рублей. Мужчина уже заказал аккордеон за 1,7 млн рублей, но придется дожидаться изготовления инструмента, срок не малый — почти два года.

Еще часть выигрыша он планирует потратить на оборудование музыкальной студии у себя дома, где сможет записывать музыку. Оставшиеся средства островитянин переведет на свой на банковский вклад. Кстати, Андрей не планирует менять свой образ жизни и увольняться из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де работает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사할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장신구 전시회 개막

사할린 지역 미술관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장신구의 지리학' 전시회가 개막됐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다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동양미술관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문화의 독특한 조합은 전통에 대한 존중, 문화에 대한 관심,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강조합니다"라고 사할린주 문화기록부 장관인 노나 라브리크가 말했다.

이 전시회에는 화려한 의상, 카펫, 생활용품, 회화, 그림 등 국립동양미술관 소장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파슈툰 목걸이, 구슬로 장식된 발루치 패치, 누리스탄인의 간결한 장신구, 타지크 및 우즈베크 수공예품, 거대한 투르크멘 부직, 검은색 카자르 망토 등의 장신구가 특별 섹션에 전시되어 있다.

알렉산드르 세도브 국립동양미술관 관장은 연설에서 사할린 지역 미술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이 세 번째 공동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에, 두 번째는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람들의 신비로운 문화를 소개합니다"라고 알렉산드르 세도브가 말했다.

Выставка украшений Афганистана и Пакистана откры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География украшений Афганистана и Пакистана». Это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искусств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который знакомит сахалинцев с культурой различных народностей, населяющих территории Афганистана и Пакистана.

— Уникальное сочетани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оторое мы видим на этой выставке, подчеркивает наше уважение к традициям, наш интерес к культуре, наше стремление жить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200 произведений из коллекц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скусств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красочные костюмы, ковры, предметы быта, произведения живописи и графики. В особый раздел выделены украшения - массивные ожерелья пуштунов, бисерные нашивки белуджей, лаконичные украшения нуристанцев, таджикские и узбекские изделия, массивные туркменские амулеты и покрытые черной уборы хазарейце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Седов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собо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Это третий совместный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Первый состоялся в 2018 году, второй в 2020 году, а на этом проекте мы знакомим с загадочной культурой народов Афганистана и Пакистана, корни которой уходят в глубину тысячелетий,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Седов.

(8면에 계속)

코르사코브한인회, 멋지게 <세대간 대화>발표공연 마쳐

지난 15일(토) 코르사코브시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코르사코브지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이하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주최로 '세대간 대화' 발표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날의 무대는 코르사코브 한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그룹과 예술단들, 그리고 초대된 '플로우 모션'댄스그룹이 선보였다.

사물놀이교육은 한인교육회에서 2013년부터 시작해, 2015년에는 '미니말'사물놀이팀이 생겼고, 2019년 11월부터는 '아리랑'무용단이 설립되었다. 현재 이 무용단에서는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전통춤을 배우고 있다. 작년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그룹의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보컬그룹과 '소울 댄스' 청소년그룹이 그것이다. 남녀노소를 위한 그룹들이라 이번 공연 제목을 '세대간 대화'라고 하기로 했다.

모든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인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알리나 모로즈는 고전 시인 푸쉬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중 타티아나의 편지를 한국어로 읊어서 박수갈채를 받았고, 보컬그룹 참가자인 나짐코 웨로니카는 플루트로 '아리랑'을 연주해 깊은 인상을 심

어주었다. '미니말' 사물놀이팀은 상급그룹의 새 연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초등그룹의 데뷔무대에서는 응원소리가 높아졌다. 오현미 씨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로 청중들을 감동시켰고, '아리랑'무용단의 우아한 춤, 청년무용단의 전통춤 공연, 보컬 그룹의 다양한 노래 등 모든 공연이 세대를 아우르며 훌륭



(본사 기자) (사진: 코르사코브지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 제공) 하게 치러졌다. 한 무대에 오른 남녀노소 모두가 아름다웠다.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2023.4.20.)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 한국정부는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인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 중인 나라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미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미국의 요청한 유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령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합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을 넘어, 전쟁이 지속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명의 희생이 더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에 온 난민을 인정하고 돕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우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다른 나라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여 전쟁에 개입하고, 그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 그 선택으로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관료들은 전쟁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 방문 전에 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하는 어느 쪽이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에 대한 인정 등 평화에 더 기여하기 바란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두 나라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호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사)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평화나비, (사)어린이 어깨동무, 우리학교시민모임,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일제강점기동원시민모임, (사)통일맞이, 시민모임 독립,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동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창작21작가회,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아카데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사할린과 쿠릴열도, 58,000명의 어린이들이 여름 캠프에서 휴식할 수 있다

5월 말에 사할린 학생들을 위한 여름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할린 섬의 대표적인 어린이 캠프인 "차이카", "유빌레이니", "레스노예 오제로"가 운영을 시작할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캠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 예산에서 재정이 배정된다. 일부 어린이들은 무료로 캠프에서 휴식할 것이다. 2023년 여름에는 5억 루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2월 1일 이후 4,000명 이상의 학부모가 캠프를 신청했다.

각 건강 및 레저 센터에는 편안한 숙박을 위한 객실, 어린이들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식당, 다양한 학습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수영장, 경기장 및 코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각 센터는 방문객들에게 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테마가 바뀌면서 제공된다. 숙련된 교사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창의력을 개발하며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사할린 주 지방 정부 부의장 블라디미르 유슈크에 따르면, 지역 예산은 휴가중인 어린이 가족에게 여행 비용의 85%를 상환하고 어려운 생활 환경의 가정에는 최대 100%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캠프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주제 변화의 가장 큰 중점은 애국심 개발이라고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샤 키크테와가 덧붙였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기술 과

목과 로봇 공학을 공부했다. 주최측은 이번 시즌에는 조국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데 최대한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아방가르드" 센터는 또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엄선된 애국 수업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약 1년 전에 이 지역에 등장한 해당 센터는 "보스토크" 교육 센터에 있다. 3주 교대 방식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격 훈련, 기본 군사 전술, 응급 처치 훈련, 오리엔티어링 수업, 드론 훈련 및 기본 로봇 공학이 포함된다. 모든 수업은 30명의 전문 교사가 진행하며 캠프에서 "승리" 박물관 및 기념 단지과 "러시아-나의 역사" 박물관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부터 "아방가르드"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단기 체류 교대 체제와 5일간의 트레이닝 캠프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별도 지역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벌어진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전투를 재현하는 장소이다.

낮 시간 동안 집에 머무는 학생은 특별히 마련된 여름 보육 센터에 다닐 수 있다. 섬에는 총 300개가 마련되어 있다. 캠프에서 아이들은 편안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가오는 여름 시즌 동안 총 58,000명의 어린이가 지역 캠프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일부 어린이는 지역 보조금을 받고 러시아 중부에 위치한 전 러시아 어린이 센터를 방문할 것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иалог поколений» успешно прошел в Корсакове

15 апреля на сцен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Океан» г. Корсакова состоялся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при МО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ея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сюда влились новые силы. Было много желающих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организаци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подростки и дети, абсолютно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с разными интересами и совершенно незнакомые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 тот момент в ассоциации существовал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Минимал» и традиционный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а также велось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приходом новых активистов в июне 2022 г. были созданы молодежный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SOUL DANCE» и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И в танцах, и в пении ребята развивают как современные образы, так и сохраняют культуру, память и историю нашего народа, исполня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номера.

В отчетном концерте,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шили назвать «Диалог поколени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нсамбль традиционных танцев "Ариран"(руководитель Пак Чан Сун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Минимал" (старшая и младшая группы, руководитель Мин Вячеслав),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руководитель Ким Надежда),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SOUL DANCE»(руководитель Писковец Анна) и слушатели курс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нас каждый номер был интересным и лучшим! Но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младшую группу барабанщиков с их дебютом. Также наша вокалистка Назимко Вероника исполнила народную корейскую песню Ариран на флейте, в ее классическом варианте. Участница танцевальной группы «Соул Дэнс» Алиса Мороз прочл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ушкина "Письмо Татьяны к Онегину"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се номера прошли на «ура!». Эмоции переполняли всех! Как участников, так и зрителей! Отзывы были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В зале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300 гостей, они были не только с Корсакова, но и с ближайших городо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Подарком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при-



глашенных гостей: танцевальной студии "Flow motion" (Руководитель Дремова Александра) и Шавката Содикова. Традиции соединяют народы и поколения. Важные события создаются усилиями многих и многих людей. Даже гении не возникают из ничего, а стоят на плечах преды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опираясь на то, что они сделали. Традиция позволяет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не только современников, но и люд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Думаю, наш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стал настоящим искренним диалогом поколений.

Юлия Ким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МИД России: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Украине - враждебный акт

Любые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Украине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откровенно враждебный антироссийский акт».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19 апреля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комментируя высказыв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о возможности оказания Украине помощи оружием. В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Reuters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заявил, что, если возникнет ситуация, с которой не сможет смириться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например,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нападения на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или серьезные воен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РК не сможет ограничиться только гуманитарной ил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ой Украины.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негативно скажутся на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и будут учтены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подхода к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дупред-

д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Она также обвинила Запад в попытке втянуть в конфликт всё новые и новые страны.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заявили, что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Украине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ё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Сеула в конфликт.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Песков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РК заняла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ую позиц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оссии в связи с ситуацией в Украин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мощи оружием является её продолжением.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сия включила РК в список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за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западным санкциям. В связи с последними заявлениям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высказываются опасения о возможном обострен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KBS World**

Молодёжный тур в Сеул

15 апреля состоялась молодёжная поездка в Сеул, котора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АКРК 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фонда Хон Бом До.

35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ёжи корё сарам из Ансана, Инчона, Сеула, Парана, Чунчона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оездке.

Помимо этого,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с рус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Инчо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ебята смогли попрактиковать русский, а русскоязычные — корейский языки. Расставаясь, все обменялись номерами телефонов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щаться дальше. Ребята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осмотреть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еула, но и узнали о легендарном генерале Хон Бом До.

На вопрос о том, чем понравилась поездка, участники сказали следующее:

Давид Кан: -У меня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друзья. Это так здорово.

Артур Ки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поездка. Общение с новыми людьми, возмож-



ность померить ханбок, увидеть новые места и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Ольга Ким: За 6 лет пребывания была только в Кёнбоккун, благодаря поездке смогла побывать на вышке Намсан и в президентском дворце.

Данный проект стартовал год назад и теперь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АКРК и фонд Хон Бом До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YRT, 15 апреля 2023г., Сеул
Источник: АКРК [대한고려인협회]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К

Корёины в Корее задаются вопросом: «Где дом?»

«Печально, что все еще есть хангук (южны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не знают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та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я», — сказал мой друг во время обычной беседы по дороге домой после учебы в шко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рустно, потому что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незнакомый человек в Корее задает мне самый простой вопрос: «Вы иностранка?», — первые секунды я даже не знаю, что ответить. В голове происходит путаница — я кореянка, но из Казахстана, и при этом говорю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этому на этот вопрос никогда нет точного ответа.

Иногда я просто киваю на этот вопрос, так как не хочется занимать чужое время на долгие объяснения, 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я стараюсь поделиться своей историей, нашей историей. Я корёин в четвертом поколении и студентка Сеуль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2019 году. В Корею во время знакомства с новыми людьми я использую мало кому знакомый термин корёин, имея в виду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ходцев из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 меня корейские корни и кровь, в Южной Корее очень сложно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орейцем, и многие из моих однокурсников считают так же. Ситуацию усугубляет и то, что я наполовину кашка, или по-другому тягубя.

Интересно, что в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ах нам незачем называть себя корёинами или корёсарам. Достаточно сказать, что ты кореянка/ кореец, и всем все предельно понятно. Как говорит одна моя подруга: «В России я кореянка. В Корее я не кореянка, я корёин».

Чувство того, что ты аутсайдер, начинается с того, как мы себя называем, и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азличиями в образе жизни. Различия в этнических стандартах часто мешают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студентам найти гармонию в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ы корейцы, то, как мы мыслим и проявляем себя, совершенн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ого, как это делают южные корейцы.

Подруга, которая живет в Корее уже 9 лет, поделилась: «Даже знание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не может заставить вас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здесь «как дома». У нас одна этническ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тем не менее наша история затронула все сферы нашей жизни. Просто по тому, как мы одеваемся и ведем

себя, можно отличи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от корёинов.

Этот феномен вызывает еще более сложную дилемму у молодых студентов.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представляюсь, как корёин, некотор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начинают относиться ко мне как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орейцу (например, корейцы-американцы во втором поколении), предполагая, что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становится основной проблемой в нашем общении. С каждым днем ситуация улучшается, однако раньше из-за того, что английский был мне ближе, люди вокруг относились ко мне, как к абсолютному иностранцу.

Из-за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начиная с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ёины в основном говорят тольк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редко используют дома корейский, который называют корёмаль. Обычно это базовые фразы при общении с бабушкой и дедушкой. Меня расстраивает, что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нации нужно доказывать навыком свободного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ие американцы, будуч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здесь как корейцы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ни могут бегло говорить по-корейски. Однако точно также, как и мы,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ейцы-американцы родились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Я считаю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если не главной, то достаточно весомой причиной того,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ёин так сложно впис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Однако не все корёины такого же мнения, что и я. Иногда даже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е более 20 лет, свободное владение языком и высокое со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могут быть все еще недостаточными, чтобы перестать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чужаками». Моя сокурсница считает, что она никогда не сможе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Корее как «своя», даже если бы она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говорила по-корейски, жила и работала здесь долгое время.

Как оказалось, для некоторых студентов Корея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в их жизни, а не место, где они хотели бы остаться навсегда. Здесь же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днимается другой вопрос, с которым студенты корёин сталкиваются каждый день, — вопрос соци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Продолже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готовится к запуску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18 апр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ён Ын посет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освоению космоса, где оценил ход подготовки к запуску первого военног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по его распоряжению сформиров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которая займётся усилением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смической области. Ким Чён Ын отметил, что «обладание возможностями космической разведки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слежения за военными планами и передвижениями сил противника — это важнейшая задач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ашингтон и Сеул продолжают угрожать безопасности КНДР, размеща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ах различную военную технику, в том числе, атомные авианосцы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ядерны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о проведении «важного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но-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и по выводу на орбиту военног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Тогда был осуществлён запуск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 тестовым спутником на высоту около 500 км. Как отмечалось, тестовый спутник был оснащён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В ходе испытаний были сделаны снимки Сеула и Инчхон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запуск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вбез ООН обсудил ракетную активность Пхеньяна

17 апреля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бсудил на открытом заседании запуск Пхеньяном нов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Засед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по запросу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направленному сразу после запуска твёрдотопливной ракеты «Хвасон-18». Однако никакого документа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принято не было.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ри ООН Линда Томас-Гринфилд осудила неоднократные нарушения Пхеньяном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тметив, что его ракетная активность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угрозу миру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стпред РК при ООН Хван Чжун Гук отмети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нарушившей режим Договора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ткрыто разработав такое оружие и системы его доставки. Большинство членов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ырази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ми Пхеньяна. Однако постпред Китая при ООН Чжан Цзюнь заявил, что причи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являются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Постпред России при ООН Василий Небензя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9-30 мая состоится саммит РК и Тихоокеанских островов

29-30 ма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стретится с лидерами 18 стран-членов Форум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островов,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укреп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островными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В состав Форума входят Папуа-Новая Гвинея, Фиджи, Маршалловы Острова, Соломоновы Острова, Тувалу, Вануату, Тонга, Палау, Ниуэ, Науру, Кирибати, Федеративные Штаты Микронезии, Самоа, Острова Кука, Австралия, Новая Зеландия, Французская Полинезия и Новая Каледон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темой предстоящего саммита выбран лозунг «Укреплени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ижение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Это будет первый многосторонний саммит,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 РК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ман Чхон Мён Гвана «Кит» поборется за Букеровскую премию

Ром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Чхон Мён Гва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ит» вошёл в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Бук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2023 года.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18 апреля, когда имена автора и переводчика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Ким Чхи Ёна появилис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емии. Роман «Кит» стал четвёртым по счёту литературн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из РК, номинированным на данную литературную премию. Вместе с романом «Кит» в шорт-лист попали ещё пя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ранее включённых в длинный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Это «Времеубежище» болгарского прозаика и поэта Георги Господинова, «Скала» испанки Эвы Бальтасар, «Мертворожденная» мексиканки Гуадалупе Неттель, «Стой прочно» ивуарийца Патрика Арман-Гбака Бреде и «Евангелие от Нового Света» француз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Мариз Конде. Победитель премии будет определён 23 мая в Лондоне.

(RKI)

Когда мораль важнее денег

Сеул, 18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10 из 15 корейских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ли их семьи приняли компенсацию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а не от своих японск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ложило выплатить им компенсацию из фонда, финансируем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чтобы выйти из тупика в отношениях с Токио. Однако пятеро выживших жертв или члены семей отказались от предлож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тому что они хотят извинений от Япо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вязалось с 15 жертвами, которые подлежат компенс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от 2018 года, и 10 из них сказали, что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этот вопрос был решен быстро, и согласились принять компенсаци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сообщила Со Мин Чжун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журналистам.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жертв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компенсацию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для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мператорской Японией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таких как POSCO,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репарации Японии по договору 1965 года. POSCO уже выде-

лила для этих целей 4 миллиарда вон и Американская торговая палата в Корею также пообещала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ерховный суд в 2018 году обязал Nippon Steel 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но они отказались подчиниться и тогда Япония ввела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экспорт. Фонд связан с корейскими жертвами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и предоставил рекомендации о том, как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Два человека уже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ю, и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едоставить деньги оставшимся восьм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онда.

Каждой жертве будет выплачено более 200 миллионов вон,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умме,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й решение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плюс проценты (US\$1 = W1 310). Семьи некоторых жертв заявили, что хотели бы «завершить» длящиеся десятилетиями судебные процессы и «желают разрешить спор и улучшить 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 добавил он.

Но трое выживших жертв — Ян Гым Док, Ли Чун Шик и Ким Сон Чжу — заявили, что не примут компенсацию от Южной Кореи. Гражданские группы,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жертв, заявили,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свои нелепые попытки скрыть проблему».

Лексикология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диалога

Сеул, 17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официально использовало термин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первой Белой книге по межкорейским делам, выпуще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Юн Сок Ёля.

В ежегодной Белой книге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лучшения ситуации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на Севере и использовало терминологию, которая не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при прежнем либер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явной попытке подчеркнуть жесткую позиц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хранила жесткую позицию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На фоне хрон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рудностей Север продолжает свои ядерные и ракетные провокации, усиливая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Белой книге министерство использовало термин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мест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очевидной попытке прояснить, что Север должен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их ядерных программ. Бывш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ун Чжэ Ина официально использовало последний термин в отношении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1992 года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последнем документ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предпочло использовать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место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мого выражения «Связ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США».

Президент Юн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в мае 2022 года, пообещав жестк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провокационным действиям Севера. Он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 «смелую инициатив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то, чтобы помочь Пхеньяну развивать свою экономику в обмен на шаги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риоритет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ъединени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 перенесен на усилия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орм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улучшению ситуации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одготовке к объединению», —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ежду тем, у двух Корей не было взаимных визитов персонала, а объем торгов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нулевым на фоне ослабленных меж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и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казала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оимость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достигла 2,6 миллиарда вон (2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СШ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3,1 миллиарда вон годом ранее.

Все страны в гости будут к ним

Сеул, 16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стать седьмой страной, принимающей три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и Всемирную выставку, если она преуспеет в своей заявке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в Пусане в 2030 год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Франция, США, Канада, Германия, Италия и Япония являю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и шестью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все тр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нет 12-й страной, принимающей глоб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Ранее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11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Бельгию, Францию, США, Гаити, Канаду, Японию, Испанию, Германию, Китай, Италию и Объединенные Арабские Эмираты.

Южная Корея в прошлом принимала две выставки в Тэджоне в 1993 году и Йосу в 2012 году. Но оба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выставками, официально известными как «признанные», а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ыставки».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своем опыте проведения двух выстав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2030 года в Пусане, заяв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жидает, что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в Пусане в 2030 году, если она состоится,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им и наиболее влиятельн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торое страна может провести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одного-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проводимая каждые пять лет, обычно длится шесть месяцев, что дольше, чем признанные выставк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около 3 месяцев.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также больше, чем преды-

дущие выставки, проводившиеся в Тэджоне и Йосу, поскольку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может проводить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то время как признанные выставки ограничены выставочными площадями в 250 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в Пусане в 2030 году пройдет на площадках, которые примерно в 10 раз больше, чем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использовавшиеся для двух предыдущих выставок, по дан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оящая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также будет иметь больш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и чемпионатом мира. Кита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нее сообщало, что Шанхайская всемирная выставка 2010 года, которая привлекла около 73 миллионов посетителей, оказала в 3,49 раза больше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оздействие, чем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екине, проведенные в 2008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жидает, чт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4,8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осетят Пусан, создав экономическую ценность в 61 триллион вон (46,3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же откроет около 500 000 рабочих мест, добав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овые здания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для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в Пусане в 2030 году, также станут культурным и историческим наследием, заяв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усан также мог 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новы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ускорения своего развития в будущем, добавило о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заявило, что страна стремится повысить св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путем внедрения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вязанных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а такж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умных городов и портов.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о 31 мая.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выберут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ё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о широко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о голосовании. Оно даёт хорошую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собственный город, либо посёлок комфортнее и удобнее для жизн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с вице-преьерами.

– Мы планомерно работаем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определ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 в полтора раза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 2030 году. По нацпроекту «Жильё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уже благоустроено более 55 тысяч объектов: порядка 22,6 тысяч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 32,8 тысячи дворов, –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 Важно, что нам удалось разработать и внедрить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людям влиять на ход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и выбор приоритетов в част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мы проводим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 в нем участвует все больше россиян, равнодушных к тому, какими будут их родные города и поселки.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вынесены как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ак и конкретные дизайн-проекты для пространств, которые ранее были отобраны в регионе.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выставленных на голосование, формируется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с учетом предложений жителей. Проголосовать может каждый россиянин старше 14 лет.

– Призываю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Именно от нашей активности и поддержки зависит, как быстро появятся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современные и комфорт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Если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озволит ускорить это, то считаю, что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необходим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цесс голосования устроен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сто. Проголосовать можно на странице za.gorodsreda.ru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латформы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Госуслуги. Решаем вместе», на виджет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Госуслуги. Решаем вместе» на сайте вашего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а такж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голосование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участников.

– З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платформа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а себя как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участия граждан в вопроса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такую работу вовлечены жители, и мы отмечаем по-настоящему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и желание граждан участвоват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 развитии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КХ РФ Ирек Файзуллин. – Из отобранных в рамках голосования за два предыдущих года 4 493 проектов, уже реализовано 2 390. Проекты-победители этого года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план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ы планируем запустить опросы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уровня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граждан качеством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своем городе,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конкретных проектов.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к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ункционала для сбора предложений от граждан на голосование 2024 год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гражданам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за территорию или проек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волонтерские штабы.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волонтеров – это рассказать о планируемых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ях, помочь жителям проголосовать и ответить на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о голосовании. Регистрация волонтеров началась 15 марта. При этом их набор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ериода голосовани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56 тысяч волонтеров информировали граждан, собир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водили голосование, а в 2023 году уже только за месяц волонтерами на платформе ДОБРО.РФ подано более 48 тысяч заявок. Особенно радует активность жителей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и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ев, где наблюдается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Молодые люди участвуют в развитии своих городов, приобретают опыт общения, увлекаются урбанистикой. Спасибо им,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Ассоциации волонтерских центров Артем Метеле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голосования выступаю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равочно: Среди целей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ё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 рост доли городов с благоприятной средой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городов с 25% в 2019 году до 60% в 2024 году.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установле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цель по улучшению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полтора раза к 2030 году. Сделать сред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омфортной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учитывая

мнение самих горожан.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2021 году впервые было запущено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платформе za.gorodsreda.ru. На отбор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порядка 6 тыс. различных территорий.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о 9,7 млн человек старше 14 лет по всей России. В 2022 году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0,7 млн челове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в ремонте подъезд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Детализированный план предстоящих работ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едставило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Большая часть объектов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это как минимум 4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сновной упор сделают на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величив объемы ремонт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 За дв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в ремонте подъезды. Мы видим, как хорошо с этой задачей справляе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ажно, чтобы и районы набрали хороший темп, увеличили масштабы работ. В это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поможет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волонтер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позитивные изменения должны все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нашей области. У нас есть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ые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а главное – желание сами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включаются в эту работу, предлагают свою помощь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ую часть работ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и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и благоустроить 2 тысяч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оборот, особый акцент будет сделан на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обав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кажд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конкурсы на лучшие подъезды.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подъезд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оделка и покраска стен, тамбурной двери, замена ил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ерил, установка почтовых ящиков, монтаж кабель-каналов для проводов. В некоторых домах, где жители хотят создать уют в подъезде, на лестн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появляются рисунки сахалински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или героев из мультфильмов, а также картины и комнатные растения. Качество ремонта оценивают специальные комиссии, в составе которых –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старшие по домам.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 рамках партийного проекта «Единой России» «Наш двор. Наш подъезд».

Люб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субсидию на возмещение 5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ремонт общественных помещений. Какие виды работ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в подъезде, зависит от самих граждан. Чем активнее они будут в этом вопросе, тем быстрее их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доме преобразится и станет уютнее и комфортнее. Для этого жи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свою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предстоящих работах принимается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собственников или по предложениям совета до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вершились ходовые испыта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ого паром

Новейшее судно «Александр Деев» провело в акватории три дня. За это время коман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полнила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замеров и испыта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на линию современный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й автомобильно-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паром выйдет в 2023 году.

Судно вышло на испытания в режиме максимальной нагрузки на двигатели. Была замерена вибрация корпуса, микроклимат, воздух на наличие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а также уровень шума. Кроме того,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рили системы вентиляции и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помещений.

Высокий ледовый класс позволит «Александру Дееву» работать на линии, соединяющей Сахалин и материк, круглый год.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ми советской постройки паром 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в 1,5 раза больше грузов и почти в 2 раза больше пассажиров. Это 28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агонов, 12 груз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до 200 пассажир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налогичного парома «Василий Ощепк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Амурском заводе.

– Модернизация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ы Ванино-Холмск – одно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мо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Обновление паромного флота позволит нам увеличить провоз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линии между материком и острово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Олонцев.

Также в рамках этой работы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Холмск началась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ы. Она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как действующие суда типа «Сахалин», так и новые паром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на причале №1 демонтирована часть конструкций, частично проведено дноуглуб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железобет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мостового перехода и при-

чала, а также ремонт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зданий.

Кроме того, на объект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ходных молв. По завершению работ будет улучшена навигационная обстановка в Южной гавани Холм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усилится защита акватории от волнения. Также д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волят паромам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входить в порт.

Летом в Смирных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для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мотокросса

Проект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й базы в поселке Смирных, проходи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экспертиз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начнется летом текущего года.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остройку нового двух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лыжной базы, гаража и сервисного здания для секции мотокросса, создание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и, стрельбищ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Решение о постройке эт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района озвуч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На окраине поселка есть действующая лыжная база. Здесь занимаются воспитанники местной спортшколы, приверженцы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оводятся уроки физкультуры для учеников 5-11 классов. В секции мотокросса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осваивают мотоциклы. Но деревянное здание базы, возведенное в 1993 году, находится в аварийном состоянии.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ям Смирных долж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финансир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Уверен, новый объект будет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лыжные гонки. Мест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бирают до 200 участников, это очень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тором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12 тысяч человек.

– У нас много семей, в которых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лыжников. Важно, что нов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позволит сохранить эту традицию и передать ее молодежи. Также будут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атлона и мотокросса, которые все больше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как детей, так и взрослых,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гт. Смирных Андрей Никонов.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на лыжной базе занимается группа активных женщин.

– Мы регулярно тренируемся.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выезжаем на област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раз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в том числе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Желающих вести активную жизнь у нас много. Хочется, чтобы условия на лыжной базе были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ыми, как для тренеров, так 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уществующее здание деревянное, оно физически и морально устарело,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мирных Валентина Рудой, участница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в Смирных намечено на ноябрь 2025 года.

Передовой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ахалинТех» будет созда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25 году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передовог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Тех» получил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Он включает учебный корпус, научно-лабораторный блок с технопарком, библиотеку, зал собраний на 700 мест,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оранжере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Современный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озда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луч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ы России по обоим объект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екта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ов в реализации со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кампуса, регион понимает значимость проекта и идет в хорошем темпе, впереди предстоит больш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Айрат Гатиятов.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около 1,5 тыс. человек и работать 250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Здесь студенты и учен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снащенных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научных лаборатория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обогатит научный потенциал региона и приведет к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квалификации мес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ахалин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торой волны отбора проектов по созданию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сего в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17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кампусов. Это обеспечит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обучения и досуга для более чем 60 тыс. студентов.

Программа создания сети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еализуется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ми и бизнес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 위촉 절차 시작

국내외 2만여명 규모...이중 해외는 4천여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는 윤석열 정부 첫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21기 위촉절차에 들어간다고 4월 20일 밝혔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발표한 21기 자문위원 수는 현재 20기와 같은 수준인 2만여명 규모다. 이중 국내는 1만6,000여명으로 지방의원인 지역대표 3,500명과 직능대표 1만2,500명이며, 해외는 4,000여명이다.

사무처는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내 자문위원은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 기초단체장,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7월 말에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21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사무처는 "이번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위촉하는 자문위원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 건의하고, 통일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인사들을 발굴·위촉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에 대해 "동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과 국제사회의 협력·지지 강화를 위해 해외 130여개 국가에서 재외동포 수 등에 비례해 위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무처는 청년세대의 민주평통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1,000여명의 청년 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공모절차는 신규 자문위원 발굴을 위한 것인 만큼 20기 현직 자문위원은 응모할 수 없으며, 해외는 시행하지 않는다.

(재외동포신문)

"인천 재외동포청 유치 발맞춰 글로벌 도시 요건 갖춰야"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발 맞춰 글로벌 도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다. 인천은 한인 이주의 첫 출발지이고, 사할린 동포복지회관과 연구구 함박마을 등 다양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품고 있는 관문 도시로 교통·물류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천을 플랫폼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구원은 시가 다양한 국제사무를 하기 위한 법적이 기반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 본청의 국제사무를 다루는 부서는 9개 실·본부·국의 18개 과이고, 30개 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맞춘 기본 조례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드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청 유치를 따라 자치사무

와 외교부 사무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기본 계획도 마련하고, 인천시 국제화 5개년 기본계획의 정비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 시는 2022~2026년까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청 유치를 맞춰 중기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재외한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 기금의 조성도 강조했다. 재외한인 지원을 비롯해 글로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수환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재외한인 앵커기관인 재외동포청과 인천의 지역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사회·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연구위원은 "시가 선제적인 준비와 비록해 국제화 관련 법제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 자치업무와 재외한인 지원이 1개로 합쳐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경기일보)

Корёины в Корее задаются вопросом: «Где дом?»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Социальн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для человека. И,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многие студенты-корёи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учи ДТК (дети третьей культуры), лишены такой привилегии, так как испытывают значительные затруднения, когда дело доходит до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Феномен «дети третьей культуры» (ДТК) относится к людям,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и в годы развития их соци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росли в культурах (странах), отличных от культуры их родителей. Даже после 4 лет жизни в Корее из-за феномена ДТК крайне непростые вопросы вроде: «Откуда ты?», меня обескураживают. Такой простой ответ, как «я из Казахстана», чувствуется недостаточным,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раскрыть свою историю, которая скрывается порой за кулисами одиночества, растерянности и беспоконства.

«Я из Казахстана, но я не полностью казашка,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но у меня нет русских корней, я кореянка, которая никогда не жила в Корее», – мысли,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кружатся и живут в моей голове.

Прожив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й жизни в русско-казахоязычной стране, затем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в возрасте 19 лет, воссоединившись со своими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нями и изучи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амым сложным для меня стало назвать одну конкретную страну «своей».

Ответы некоторых студентов застревают между Кореей и странами, в которых они родились, потому что хотят выбрать оба варианта, пока другие точно знают, что их родиной является Россия или Узбекистан, или Казахстан. Но точно никто из студентов-корёин не считает своим домом Южную Корею.

Лично я не могу назвать своим настоящим домом ни Корею, ни Казахстан. Я застряла где-то посередине. Под словом «дом» я обычно подразумеваю свою семью и друзей, место, где живут моя семья и друзья.

Также одна сокурсница поделилась со мной, что она никогда не с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 себя как хангук сарам. «Меня всегда будет тянуть на родину. Но и в Казахстане я тоже чувствую себя аутсайдером», – добавила она.



Существует стандартный набор вопросов о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которые больше всего обсуждаются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включая различия в культуре, тоску по дому, питание и т.д.

Для меня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меркнут на фоне вопроса соци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гда я гуляю по улицам Сеула или кампусу университета, смотрю на людей, которых я хочу назвать «своими», но не могу, меня охватывает грусть.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есто рожд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ет между нами четкие границы, хотя на самом деле мы этнически одинаковы, только лишь прожили разные истории.

Но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я горжусь своим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Благодаря истории моих предков сегодня я могу говорить на русском, казахском, корей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Корёины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невероятную смесь разных культур, что позволяет нам быть открытыми, независимыми и быстро обучаемыми.

Когда дело доходит до адаптации в новой среде, такие качества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и чертам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Еще один друг корёин поделился: «У меня свой образ мысли, и я рад, что могу быть собой, быть другим. Быть другим неплохо. Нужно помнить об этом, и тогда жить будет легче».

Татьяна ХАГАЙ, Сеул
(Источник: сайт KOREANS.KZ)

김해시 장유3동 지사협, 사할린어르신과 여행

김해시 장유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순중, 공공위원장 성소희)는 김해에 정착한 사할린 어르신 58명을 모시고 산청으로 오감만족 웰니스 여행을 다녀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김해시가 주재하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동행했다.

장유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뜻 깊은 고국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할린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하고, 공연단 만들기를 시작으로 배꼽왕뜸체험, 테마탐방 등 평소 해보지 못했던 오감만족 건강체험과 고국의 다양한 문화



를 체험했다.

오철암 사할린 동포 김해시협회장은 "오늘 힘들게 시간을 내어 먼 거리를 동행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고 지친 일상회복을 위한 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창원일보)

'제12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 협의

외교부는 지난 4월 1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카나트 투르쉬 카자흐스탄 외교차관 주재로 '제12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먼저 한-카자흐스탄 양국이 1992년 1월 28일 수교와 2009년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래로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 의회 등 다양한 차원의 고위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30년을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차관보는 과거 어려운 시기에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 약 12만명을 따뜻하게 품어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중한 가교역할을 하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문화, 관광, 노동,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지난 주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무단의 호평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보는 정책협의회 이후 별도로 이란 샤르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에너지·인프라, 과학기술, 농업, 보건, 방산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성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의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최 차관보의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양국 간 정치·경제·인문 등 전반적인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어린이미술학교 학생들의 그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파트 현관을 장식할 것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미라대로 192A 번지의 아파트 주민들은 공공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미술 학교에 특별한 부탁을 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현관을 장식하는 데 사용할 아이들의 그림을 요청했다고 시정부 공보실에서 전했다.

학교에서 제공한 15개의 풍경화가 곧 현관 벽을 장식할 것이다. 주민들은 (삭제)모두가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중한 여걸 것이라 생각한다.

Картины учеников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украсят подъезды дом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Жители дома по проспекту Мира, 192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ратились в детск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школу,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общедомовое имущество. Они запросили несколько картин, для украшения подъездов,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школой 15 пейзажей скоро украсят стены подъезда. Жители уверены, что все будут бережно относиться к творениям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2,000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러시아 일자리. 기회의 시간"에 2천여명 참석

2,000여명의 주민들이 전 러시아 취업 박람회 '러시아 일자리. 기회의 시간'에 참가했다. 지역 노동 고용청의 보도부는 28 개 섹션에서 100 명 이상의 사할린 고용주들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능동적 교육" 센터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구직

자, 학생 및 학부모는 시내 고용주와 상담하고, 창업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마스터 클래스 및 자기 소개 교육에 참석하고, 노사 관계 및 산업 안전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지역과 극동 연방 지구의 교육 기관 대표들은 다양한 인기있는 교육 분야를 발표했다.

사할린주 노동고용청장 타치야나 바비치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고용 서비스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는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가 향후 취업에 가장 유망한 분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Более 2 тыс.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осетили ярмарку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Работа России. Время возможностей»

Более 2000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Всероссийской ярмарк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Работа России. Время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 28 площадках свыше 100 островны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бод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Ярмарка прошла в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Здесь соискатели, учащиеся и их родители могли общаться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города, узнавать о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и открыт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пройт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тренинги по самопрезентации, а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еминарах по трудов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охране тру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и и ДФО презентовал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по различ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у все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была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быстро найти работу, но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все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овременной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ярмарки могут помочь студентам, выпускникам и их родителям выбрать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отрасл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돌린스크 시에 제시는 신용식 옹계 드리는 축하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할아버님! 86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지·할아버님 장수하시며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쾌활함과 활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손자녀, 손주들로부터 드림

Любимый дедушка!

Прими наши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Хотим от души пожелать тебе долголетия, отличного самочувствия, бодрости,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жизненных сил и прекрас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А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рядом!

Любим, обнимаем!

Дети, внуки, правнуки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казывает услуги по переводу документов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 т.д.) 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корейский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Обращаться в редакцию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с 10.00 до 14.00, пятница с 10.00 до 12.00.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